



'내가 돌아왔다!' 할리우드 스타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터미네이터'의 새 시리즈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개봉을 앞두고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가운 포즈로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72세 터미네이터 “난 아직 팔팔해”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30일 공개 슈워제네거 내한...액션열정 과시 스텔론 '람보' 내일 개봉...기대감

"I'll Be Back."
'살아있는 전설'들이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켰다. 1980년대에 태어나 할리우드 액션 시대를 이끌며 액션영화의 대표 캐릭터이자 작품으로 남은 '터미네이터'와 '람보'다. 그 주역으로 30년 넘도록 레전드의 위치를 지킨 아놀드 슈워제네거(72)와 실베스터 스텔론(73)이 각기 대표 시리즈의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는다.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과 건장한 몸을 과시하며 액션 레전드의 명성을 재확인할 기세다.
포문을 연 사람은 아놀드 슈워제네거다. 1984년 시작한 '터미네이터'의 새 시리즈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를 30일 공

개한다. 이에 앞서 20일 내한한 슈워제네거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직 팔팔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는 각각 인간과 함께 살아온 터미네이터 'T-800'과 '심판의 날'을 아들 존 코너와 함께 막은 사라 코너의 이야기.이번에도 화려한 액션의 장면들을 예고하고 있다. 슈워제네거는 나이를 뛰어넘는 현란한 액션연기를 펼치며 관객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평소 꾸준히 운동해 이런 영화 섭외에도 언제든지 준비 태세가 돼 있다"는 그는 "촬영 몇 개월 전부터 스팀트랜 등과 함께 액션을 반복해왔다"며 열정을 드러냈다.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는 1편과 1991년 2편에서 이어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그는 시리즈의 원작자이자 제작자인 제임



람보:라스트 워 실베스터 스텔론

스 카메론 감독, 1·2편의 또 다른 주역 사라 코너 역의 린다 해밀턴(63)과 다시 만나 '드립틱'을 완성했다. "액션배우로서 나를 만들어준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린다 해밀턴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슈워제네거의 말에 린다 해밀턴은 "의상을 입고 세트에서 그를 만난 순간 '내가 정말 100% 영화에 복귀했구나' 실감했다"며 "순간적으로 사라 코너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린다 해밀턴의 사라 코너는 아들 존 코너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세계

액션영화사에서 손꼽힐 만한 여전사의 이미지로 남았다. 이는 이번에 함께 작업한 후배이자 극중 미래에서 온 '슈퍼 솔저' 역의 맥켄지 데이비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라 코너가 강인한 여성상의 시조다"면서 "1편과 2편의 캐릭터를 많이 참고했다"며 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더불어 할리우드 톱톱 액션스타로 꼽히는 실베스터 스텔론도 대표 시리즈 '람보'로 돌아온다. 23일 개봉하는 '람보:라스트 워'가 그 무대다. 1983년 시작된 '람보'는 올해로 탄생 36년을 맞는 액션영화의 전설. 실베스터 스텔론은 이번 '람보:라스트 워' 그 동안 역사를 그대로 답는다. 40여 년 동안 전장을 누빈 람보가 멕시코에서 치르는 마지막 전투를 그린다. 제작진은 "람보" 시리즈의 피날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14년 만에 스크린 복귀

'명품 여배우' 김희애 & 이영애
이영애 '나를 찾아줘' 11월 개봉 '윤희에게'는 김희애표 멜로 주목
배우 김희애와 이영애도 11월 스크린에서 만난다. 오랜 시간 대중과 호흡해 온 두 사람이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관객에 다가선다.
김희애의 선택은 11월14일 개봉하는 멜로영화 '윤희에게'(제작 영화사 달리기)이다. 멜로나 로맨스 장르의 한국영

화 제작이 드문 데다 중년의 배우가 그 주연으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김희애의 존재가 시선을 더욱 붙잡는다.
'윤희에게'는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주인공 윤희가 첫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는다. 지난해 영화 '허스토리'에 출연하는 등 최근 스크린 활동에 주력해 온 김희애는 신인 임대형 감독의 제안을 받고 호기심이 일었다고 했다. 그만큼 작품에 공감했다는 의미다. 12일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먼저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김희애는 "촬영하는 동안 신선하고 행



'윤희에게' 김희애 '나를 찾아줘' 이영애

복한 마음으로 연기했다"며 "극중 첫사랑을 찾아가는 길이자 자신을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 소설책을 읽어가듯 재미있게 임했다"고 밝혔다.
이영애의 복귀 역시 11월 한국영화 이슈 가운데 하나다. '친절한 금자씨' 이후

무려 1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는 이영애의 선택은 '나를 찾아줘'(감독 김승우·제작 26컴퍼니)이다. 6년 전 실종된 아들과 생김새부터 흉터 자국까지 똑같은 아이를 봤다는 의문의 연락을 받은 주인공이 낯선 마을로 향하면서 겪는 이야기다.
이영애는 결혼과 육아 등으로 연기활동을 중단했다 2017년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로 복귀했다. 대중성을 노린 당시 드라마와 달리 이번 영화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둘러싸인 한 여성이 겪는 이야기를 그린 심리극이란 점에서 그의 저력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유재명, 박해준 등 실력과 배우들이 이영애와 호흡을 맞춘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슬픈 아이유

절친 설리 죽음 충격에 침거 중 새 앨범 발표 연기... "시간 필요"



아이유

"시간이 조금 필요해..."
가수 아이유가 결국 새 앨범 발표를 연기했다. 11월1일 다섯 번째 미니음반 '러브 포엠'(Love poem)을 내고 가수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설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그 충격과 아픔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탓이다.
아이유는 20일 "예정된 앨범을 조금 연기하게 됐다"면서 "저 개인에게 시간이 아주 약간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은 못 박지 않았다. 소속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일 이를 공식화했다. 한 관계자는 "오래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11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그동안 연이어 출연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이번 음악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를 한층 높여놓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새 앨범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당초 새 앨범을 선보인 뒤 광주를 시작으로 인천, 부산, 서울 등에서 앨범과 동명의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었던 그는 관련 내용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아이유가 팬들과 약속은 물론 앨범 유통사와 콘서트와 관련, 대관 등 계약 문제까지 연계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렇듯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설리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평소 아이유와 설리는 친자매와도 같은 우정을 쌓아왔다. 평소 설리에 대한 아이유의 남다른 애정은 2012년 발표한 앨범 '스무살의 봄'의 수록곡 '복숭아'로도 드러났다. '복숭아'는 아이유가 당시 SBS '인기가요'를 설리와 함께 진행하며 그의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작사, 작곡한 노래다. 설리가 세상을 떠난 뒤 '복숭아'가 각종 음원차트에 재진입했다.

이에 화답하듯 설리는 아이유가 최근 주연한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 카메오 출연했다. 이는 설리가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무대가 됐다.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단편영화 시리즈 '페르소나2'도 아이유의 추천으로 응했다. 아이유는 '페르소나1'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아이유는 설리가 세상과 영원히 작별한 17일 이후 현재 침거 중이다. 주변에선 "평소 어떤 일에도 크게 감정의 변화가 없는 아이유는 설리가 떠난 뒤로 그 아픔을 홀로 견디고 있다"고 말한다. 한 측근은 "최근 아이유에게 향하는 비난 등 악성 댓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다시 자신을 추스르고 건강하게 팬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4

롤라 출신 김지현, '두 아이' 고백 화제

그를 롤라 출신 김지현이 두 아이의 엄마임을 고백해 21일 온라인상 화제를 모았다. 김지현은 20일 밤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고등학교 1년생과 중학교 2년생 두 아들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2016년 결혼할 당시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다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었고,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했다"며 결혼 당시 이를 알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원숙-박소담, 알고보니 6촌지간



박원숙 박소담

배우 박원숙과 박소담이 6촌 사이의 친척인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모은다. 박소담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21일 "두 사람이 6촌지간이다"면서 "박원숙의 사촌 오빠의 손녀가 박소담이다"고 밝혔다. 박원숙과 박소담의 할아버지가 사촌지간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연예계에서도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던 것으로, 그동안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더욱 화제가 됐다.

'기생충' 영평상 최우수작품 선정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영화평론가 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영평상 최우수작품에 뽑혔다. 봉 감독은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11월13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리는 제39회 영평상 시상식을 앞두고 수상자(작)을 발표했다. '기생충'은 촬영상 등 3관왕에 올랐다. 신하균과 김향기가 각각 '나의 특별한 형제'와 '증인'으로 남녀주연상을, '극한직업'의 진선규와 '벌새'의 김새벽이 남녀조연상을 받는다. '배심원들'의 박형식과 '벌새'의 박지후가 남녀신인상의 주역이 됐다. 공로영화인상 수상자는 배우 엄영란이다.

전도연 '한국영화 100년' 무대 선다

배우 김지미, 전도연 등이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하는 무대에 선다.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한국영화 100년 기념 음악회'에 나선다.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창호 감독과 배우 장미희, 홍보위원장 안성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함께 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배우 김병춘이 번사로 나서고, 가수 겸 연기자 양동근, 가수 임희숙, 김윤아, 김태우, 바리톤 박정민, 소프라노 김수연 등이 한국영화 OST를 부른다.